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산문



한겨레출판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이자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영화의 첫 장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뛰고 있는 심장이다. 이 장면은 말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뛸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돌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 본문 중에서



값 16,000원

ISBN 979-11-6040-196-7

두 번째 산문집을 묶으며

1.

건축학을 잘 모르면서도 글짓기는 집 짓기와 유사한 것이라 믿고 있다. 지면(紙面)이 곧 지면(地面)이어서, 나는 거기에 글을 짓는다. 건축을 위한 공정 혹은 준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을 생산해낼 것. 있을 만하고 또 있어야만 하는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 한 편의 글에 그런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은 (취향이나 입장이 아니라) 인식이다. 둘째, 정확한 문장을 찾을 것. 건축에 적합한 자재(資材)를 찾듯이, 문장은 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특정한 인식을 가감 없이 실어 나르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는 플로베르적인 가정을 나는 믿는다. 그런 문장은 한번 쓰이면 다른 문장으로 대체될 수 없다. 셋째, 공학적으로 배치할 것. 필요한 단락의 개수를 계산하고 각 단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배분한다. 가급적 각 단락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고 이를 쌓아 올린

다. 이 시각적 균형은 사유의 구조적 균형을 반영한다(반영해야 한다). 이제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한 단락도 더하거나 빼면 이 건축물은 무너진다(무너져야 한다).

이 셋을 떠받치고 아우르는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 세상에는 교환 아닌 것이 별로 없으므로, 좋은 글을 얻고 싶다면 이쪽에서도 가치 있는 것을 줘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 줄 수 있다. 생명은 '일생'이라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시간이라는 형태로 분할 지불이 가능하다. 생명을 준다는 것은 곧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듣기의 철학》(와시다 키요카즈, 아카넷, 2014)에 따르면 '터미널 케어'(말기 간호)의 본질은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있다고 한다. 죽어가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케어이므로, 케어란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도 그렇지만 글쓰기도 그렇다.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안 준 것이다. 여기 묶은 글들은 내 8년 동안의 생명 중 일부를 주고 바꾼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쓰면서 나는 죽어왔다. 그러나 이 글들은 지금 나에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2.

《느낌의 공동체》(문학동네, 2011)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산문집이다. 《느낌의 공동체》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의 내게는 일종의 '재치'의 산물로 보인다. 독자를 웃기려 했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뜻이다. 30대 초반의 나이에나 감히 시도할 수 있고 또 가끔은 성공하기도 하는 거래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너그럽게 보아준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읽히고 있지만 나는 이제 그 책을 얼마간 부끄러워한다. 이번 책 역시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적어도 독자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0년 이후에 발표한 글들 중 짧은 글들을 모으고 그중 절반을 취해 가능한 수준에서 손을 보았다. (2016년에 '격주시화'라는 타이틀하에 연재한 글은 그만큼의 분량을 더 써서 별도의 단행본으로 묶으려고 한다.) 90편 조금 못 되는 글들을 슬픔(1부), 소설(2부), 사회(3부), 시(4부), 문화(5부)로 나눠 배치했고, 각 부의 성격을 대변할 만한 글을 부의 첫머리에 두었다.

지난 7, 8년 동안의 글을 모아보니 슬픔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 우연한 결과만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이것들을 따로 추려 1부를 만들었고, 총론이 필요해 보여서 <당신의 지겨운 슬픔>을 새로 써서 더했다. 슬픔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 것은 2014년 4월 16일 때문이기도 하고 2017년 1월 23일 때문이기도 하다. 전자는 세월호가 침몰한 공적인 날짜이고 후자는 아내가 수술

을 받은 사적인 날짜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나란히 놓는 것이 죄스럽지만 내게는 분리하기 어려운 두 번의 일이다. 아 이들이 가라앉는 걸 본 이후 한동안 나는 뉴스를 보며 자주 울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괴로워 피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눈물도 멈췄다. 아내가 수술을 받은 날 우리는 병실에서 껴안고 울었는데 울면서도 나는 아내와 다른 곳에 있는 것만 같았고 그 슬픔으로부터도 아내보다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는 무참해져서 이제부터 내 알량한 문학 공부는 슬픔에 대한 공부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느낌의 공동체》에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으로 넘어왔다. 같은 화가의 다른 그림을 표지로 얹었는데, 그때는 그림 속의 배를 어떤 당신과 함께 타고 있다고 여겼으나 지금은 내가 이르지 못할 슬픔을 가졌을 당신의 뒷모습을 그림 밖에서 바라본다.

3.

내가 교수로서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배우는 일이다.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직업의 본령은 차라리 배움에 가깝다. 내가 재직 중인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에게 배우며 이 글들을 썼다. 내가 제자로 살 때는 선생이 제자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한겨레21》의 '문학사

용법' 코너에 연재한 글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루었고, 이후 《한국일보》, 《경향신문》, 《광주일보》 등이 과분한 지면을 내주어 계속 쓸 수 있었다. 내가 신뢰하는 이 매체의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한겨레출판사 여러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수년 동안 꾸준히 출간을 독려해주신 김수영 본부장님, 필요한 때마다 용기를 준 임선영 팀장님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함께 만든 책임편집자 류기일 님에게 느끼는 고마움은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다. 그의 조언과 제안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것에 감명받은 나는 언젠가부터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훗날 이 책의 시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따뜻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의 이름일 것이다.

아내 신셋별 평론가의 조언 덕분에 책의 구조와 제목을 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그와 나에게 오래 슬퍼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곳에 우리가 꼭 함께 있었으면 한다. 그 일이 다른 한 사람을 피해 가는 행운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같이 겪지 않은 일에 같은 슬픔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그동안 나의 글들을 읽어주었고 이제 이 책을 읽게 될 분들에게, 대체로 내 삶을 이해하고 버텨내기 위해 쓰인 글들이어서 내 글의 시야는 넓지 않고, 살아낸 깊이만큼만 쓸 수 있는 것이 글이므로 나의 책이란 결국 나의 한계를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나의 책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가끔 무언가를 용서받는다
는 느낌마저 든다.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을 아
직 찾지 못했으므로, 나는 이제 또 한 권의 책을 만들 수밖에 없
으리라.

2018년 가을

신형철